

Norsk Hydro, 해상석유 메이저 부상

12월18일 슈타트오일과 합병 합의 ... 하루 190만배럴 생산 Shell 제쳐

노르웨이의 양대 석유회사가 합병에 합의함으로써 세계 최대 해상석유회사가 탄생하게 됐다.

노르웨이 석유회사 슈타트오일과 Norsk Hydro는 양사의 해상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을 합병하기로 합의했다고 12월18일 발표했다.

합병회사는 2007년부터 하루 190만배럴의 원유를 생산해 앵글로-더치 Shell을 누르고 세계 최대의 해상 석유회사의 위치에 오르게 된다.

양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노르웨이 정부는 합병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고, 합병소식으로 Norsk Hydro의 주가는 25%나 폭등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현재 슈타트오일의 지분 71%, Norsk Hydro의 지분 44%를 보유하고 있어 합병 이후에도 노르웨이 정부가 합병회사 지분 62.5%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르웨이는 세계 3위의 석유 수출국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2/19>